

무주 반딧불축제 개막

정세균 국회의장 등 3천여명 참석 태권도 시범단 공연 등 성년 자축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가 지난 27일 무주읍 등나무운동장에서 막을 올렸다. 개막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안호영 국회의원, 전라북도 김일재 행정부지사, 오시덕 공주시장, 이진식 김제시장, 오규석 기장군수, 이근중 재경군민회장, 이대순 태권도진흥재단 명예이사장 등 3천 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무주읍을 비롯한 6개 읍면 주민들과 다문화가족, 지그재그 악단, 깃발행렬단 등으로 구성된 길놀이단의 입장으로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시작을 알린 개막식에서는 무주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과 북 & 비보이 마살아츠가 어우러진 ‘자연의 울림’ 공연이 펼쳐졌으며, 성년을 맞은 무주반딧불축제를 축하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창작뮤지컬 ‘형설지공’이 주제가연으로 마

련돼 눈길을 끌었다. ‘형설지공’은 샌드아트와 불공연이 어우러진 공연을 통해 반딧불이의 탄생과 사당 등 일생을 담아냈다.

이어진 반디갈라쇼에서는 제9회 반딧불동요제 대상 수상자 김효진 씨(25세)가 출연해 ‘밤’을 비롯한 ‘반딧불’ 등 다양한 수상곡들을 불러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환영사를 통해 황정수 무주군수는 “성년을 맞은 무주반딧불축제가 환경, 체험, 소득증대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환상적인 빛 반딧불이의 군무가 일깨워주는 환경사랑과 무주의 흥을 만끽할 수 있는 전통놀이, 그리고 무주사람들의 인심과 마을의 정서를 함께 느낄 수 있는 마을로 가는 가을축제가 큰 감동을 전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내 최초 생태환경축제로 출발한 무주반딧불축제가 성년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무주반딧불축제가 앞으로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세계 제1의 청정축제, 국민 모두가 즐기는 우리나라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발돋움해나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에서 신나는 농촌문화 즐기자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 농촌체험 프로그램 마련

제10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기간 남녀노소 함께하는 풍성한 농촌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축제추진위는 축제기간 방문객들이 오감만족의 신나는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비롯해 장수사과수확체험을 비롯해 동물목장체험, 농촌공방체험, 오감만족 오미자체험, 사과떡매치기 등 농촌체험마당을 상설 운영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수군의 대표 Red Color인 토마토를 던지고, 밟고 으깨며 토마토 속 황금반지를 찾는 ‘토마토 속 황금반지 찾기’를 비롯해 장수사과수확체험을 비롯해 동물목장체험, 농촌공방체험, 오감만족 오미자체험, 사과떡매치기 등 농촌체험마당을 상설 운영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 밖에도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에서 1박2일간 가족과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적과의 동침, 물고기잡기, 수상자전거, 앵그리사과체험, 스키 체험, 비눗방울체험, 사람의 소원패 체험, 추억의 놀이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군 관계자는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

제는 장수의 문화와 건강한 먹거리를 맛있게 맛보고 즐기는 농촌문화체험 축제로 대표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 참여형 프로그램을 강화해 축제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고원 홍삼한우 본격 출시

출시기념 시식행사 가져

진안군은 지난 10일부터 무진장축협(조합장 송재근)과 공동으로 홍삼한우 판매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지난 26일 홍삼한우사업단과 이항로 진안군수를 비롯한 진안군의회 의원, 송재근 무진장축협 조합장 및 관련 기관 5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홍삼한우 출시기념” 시식행사를 가졌다.

이번 시식행사는 진안고원 홍삼한우의 첫 출하를 기념하고 장수한우와 홍삼한우를 비교 시식하여 홍삼한우의 브랜드로서의 발전가능성을 가능하고 진안의 새로운 먹거리 생산으로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된다.

군은 그동안 체계적인 홍삼한우 생산을 위하여 무진장축협과 브랜드육

성 계획수립과 홍삼한우사업단을 구성, 사양관리 프로그램개발 및 사료를 개발하고 시범 사육농가 5호를 선정하여 8월부터 홍삼한우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홍삼연구소, 전북대학교와 연계 육질 분석 등으로 맛과 향이 뛰어난 고품질 홍삼한우 브랜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항로 군수는 “진안고원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홍삼특구이며, 진안홍삼이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홍삼분야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홍삼부산물 이용한 최고의 홍삼한우를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 홍삼한우 브랜드 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자생센터, 워크숍 개최

완주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직무대행 이상운)는 지난 26일 진안홍삼과 세미나실에서 2016 자원봉사관리자 및 봉사단 대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사)한국 여가 레크리에이션협회 전북지부 최용재 지부장의 ‘자원봉사자의 긍정적인 마인드, 즐거움을 주는 리더양성’이라는 주제로 자원봉사 리더의 재능 및 리더십 역량강화와 소통을 통한 비전수립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센터 이상운사무장은 토론의 장을 마련해 자원봉사 활동지도,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봉사단 대표들에게 사기진작과 유기적인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참여 식 분임 토의로 자원봉사활동 현안의 문제점 및 진단, 2017년 봉사제안 및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하고 앞으로 자원봉사 물결의 향후 방향 및 자원봉사 활성화방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특강과 토론의 장 이후에는 스키를 진행해 자원봉사관리자 및 봉사단 대표들의 몸과 마음에 건강과 휴식 및 에너지충전뿐만 아니라 힐링의 시간이 됐다.

한편, 워크숍을 진행하기전에 완주군 자원봉사센터와 사)한국 여가 레크리에이션협회 전북지부 간 업무협약이 이루어 졌으며 양 기관은 서로의 발전을 만들어 가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어린이 사생대회 참여하세요

다음달 19일까지 접수

완주군이 다음달 23일 도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6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어린이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완주군의 대표축제인 완주와일드푸드축제 기간 중 첫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생대회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창의적인 예술능력을 함양하고 옛 추억과 음식이 함께하는 축제체험을 통해 이색적인 즐거움을 제공하고 자 마련됐다.

이번 어린이 사생대회는 6~7세의 유치부와 초등부를 대상으로 참가종목은 크레파스와 파스텔화로 그림주제는 현장에서 공개

될 예정이며, 대상 1명(전라북도지사상), 최우수상 2명(완주군수상), 지도교사상 등 총 26명을 선발하고 대회 참여자에게는 축제 체험권이 제공되어 와일드푸드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생대회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작품을 축제기간 중 전시하는 ‘와프갤러리’를 운영하여 축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함께 가족단위의 축제 재방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신청은 9월 19일까지 학교장 추천과 개별접수를 병행하며 개별접수는 전화(063-290-2242) 또는 완주군 관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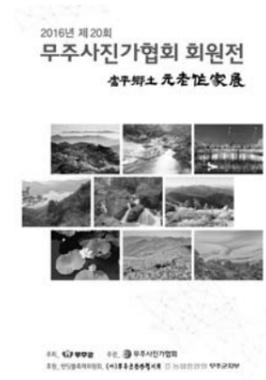
무주 사진가협회 회원전

내달 10일까지 김환태문화관서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사진가협회(회장 이윤승)가 주관하는 무주사진가협회 ‘제20회 회원전 및 부평향도원로작가회 교류전’이 9월 10일까지 무주읍 김환태문화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20회를 맞는 무주반딧불축제와 역사를 함께 하고 있는 무주사진가협회 활동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1백여 페이지 분량의 사진 도록도 함께 발간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무주사진가협회 회원들의 작품 30여 점과 부평향도원로작가회들의 작품 15점 등 총 40여 점을 볼 수 있으며 전시 작품들은 모두 사진가협회 회원들이 1년여 동안 꾸준히 준비해 온 것들로 덕유산과 무주구천동, 칠연계곡, 적상산



등 무주군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소개하고 있다. 또 부평향도원로작가회에서는 조각과 사진, 동양화, 서양화, 서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준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공급실태 점검

진안군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공급실태 및 위생관리 지도·점검에 적극 나섰다.

지난 4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진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진안고원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산물을 관내 학교에 급식 식재료로 공급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

올해부터 친환경농산물 저농약인증 페지로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 공급뿐만, 부정부류 등이 우려되고, 최근 무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보관중인 식재료의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 식재료 수송차량의 청결유지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진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관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 및 유통업체로부터 식재료를 수집해 각 학교로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시범운영 하고 9월부터 전면 시행하여 계약과정의 투명성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고, 지속적인 위생 및 품질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수도권서 귀농귀촌 정책설명회 진행

완주군이 수도권에서 ‘찾아가는 수도권 귀농귀촌 정책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수도권 상담홍보관에서 진행되었다.

예비귀농귀촌인 80여명은 로컬푸드 등 완주군의 각종 정책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등 새로운 귀농귀촌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완주군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번 설명회는 완주군 농촌활력 정책, 귀농귀촌 지원현황, 귀농귀촌 성

공사례로 나누어 이루어졌으며, 특히, 선미네 농장 이선미 대표의 ‘귀농! 로컬푸드에서 답을 찾다’와 구암 현미쌀 두부 김민 대표의 창업 사례 발표는 구체적인 애로사항과 대책을 제시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다.

강평서 농업농촌정책과장은 “수도권 등 완주군의 각종 정책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등 새로운 귀농귀촌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완주군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번 설명회는 완주군 농촌활력 정책, 귀농귀촌 지원현황, 귀농귀촌 성

/완주=이종복 기자

로컬푸드리노스

무주국유림관리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간담회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2016년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인 산림병해충 예방·방제단 및 산림보호지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산림피해 예방 및 병해충 예방·방제 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업무추진방법 개선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을 단풍철 등산객에 의한 산림피해 예방을 위하여 산림보호지원단을 집중 배치하여 홍보를 통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를 당부 한다고 밝히며, 겨울철 딸감을 위한 소나무류 채취를 금지하고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적극홍보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줄여 국민행복 정부3.0을 실현 하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 계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장수군 계남면이 ‘계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축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계남면은 지난 25일 박현식 계남면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계남면사무소 2층 소회의실에서 ‘계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식을 가졌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정책에 따라 구성된 ‘계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박현식 계남면장을 위원장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계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협의체의 역할과 기능, 추석명절 복지대상자 발굴 및 협의체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식품안전 위생교육 실시

진안군은 지난 26일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주와 종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부정 불량식품 예방과 식품안전 위생교육을 문화의집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그동안 제조업소 지도 점검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과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안전한 식품을 제조·유통과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기준과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알고 실천 할 수 있도록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전문 강사에게 위탁하여 개정된 내용과 사례 중심별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유순영, 장덕규 전문 강사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제품의 표시가 올바르지 못하면 제품이 회수되는 등 영업주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식품 표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진장소방서, 추락사고 환자 구조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지난 25일 11시45분경 안성면 칠연계곡에서 약 3m 절벽 아래로 추락한 환자 1명을 구조했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중인 윤 모씨는 일행들과 함께 칠연계곡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바위에서 3m아래 절벽으로 굴러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119구조대는 현장에서 추락한 환자를 산악용 장비로 구조,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했다.

/무주=전문선 기자